

<국어>

부산교대 임천택 교수님: 과정중심읽기쓰기 중시, 쓰기 56학년 중시, 꼼꼼한 성격, 텍스트 중심 읽기/독자 중심 읽기, 결과 중심 쓰기/과정중심 쓰기, 교육과정/해설서보다는 교과서, 직접교수법

공주교대 권혁준 교수님: 아동문학

대구교대 윤준채 교수님: kwI 강조, 읽기 전중후 학습 강조

<도덕>

정보에는 교원대 교수님만 계셨는데, 교원대 교수님은 다 안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뵙게요. 개념분석, 가치분석, 가치갈등, 이야기 수업모형.

<사회>

진주교대 심광택교수님: 지리, 작년과 같은 개념문제 강조, 각론 잘 모르심. 지리 전공이신데 수리적 사고, 지리적 사고도 잘 구분 못하심. 중간고사 나왔던 문제는 1.탄력적 환경확대법 설명(장점) 2. 역사의식 3가지 적고 약술(고금의식, 인과의식, 변천) 3. 공공성 개념 설명 4. 역사교육에 적당한 자료 3가지(연표 등..) 5. 사회과 미시적 평가 절차 적고 약술 6. 이동(?) 개념. 범위는 지층이었으나 모형하나도 안나옴. 지도, 지리정보체계. 대동여지도, 인구성장, 인구분포, 농업활동, 공업공간, 도시, 중심지이론, 기후변화와 문제를 배웠음.

진주교대 정호범교수님: 모형 구분, 가치분석 모형 되게 강조(자신이 출제 들어가면 무조건 낸다고했지만 1차치고 나서는 도덕과에 가치분석이 나왔으니 나오긴 힘들것 같다고 함. 가치명료화도 나오기 힘들것 같다고 하였고, 문제해결, 의사결정, 개념학습 강조), 검토위원인 듯, 모형 엄격히 강조,

경인교대 이동원 교수님: 개념학습모형/의사결정학습모형/탐구학습모형/문제해결학습모형 이렇게 4개로만 분류하시고 수업하심. 기말고사 문제에 문제해결학습모형 나왔었음. 1차 사회특강 자료 만든 사람. 모형은 이상하니까 가려 보시길. 초등사회과 탐구 학습 모형을 이용한 혼합형 학습에 대해 강의

경인교대 전종한교수님: 지리

공주교대 장원순교수님: 일반사회 사회문화 전공, 논쟁문제 출제, 일반사회전공 개념중시, 작년에 2차 출제(법리 vs 문제해결), 특강때 법리는 강조하시긴했는데 비교해서는 강조하지 않음. 경제부분 강조 의사결정 모형 설명하시면서.(회소성, 교환가치, 합리적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작년 공교모고에 협동학습 사회과 평가 등 문제 출제. 다문화 전공이신듯. 협동학습 강조, 모형강조 + (메타인지,시민성,지역화,역환경확대법)

<수학>

청주교대 한대희교수님: 도형과 측정, 도형 뿐아니라 측정쪽 들이, 부피도 강조

부산교대 백대현교수님: 수와연산, 두세번 꼬아서 말하는 걸 좋아하심. 1차 바둑돌 문제처럼.

경인교대 송상현교수님: 영재교육 전공, 수업시간에 대학생도 못 푸는 수학 퀴즈 냈, 문제해결을 많이 강조,

청주교대 나귀수 교수님: 귀납적 추론 모형, 56수학 강조하심, 소수의 나눗셈, 직육면체 부피, 분수의 등분제 & 포함제, 분수의 다양한 의미(이산량, 연속량, 몫으로서의 분수 등), 수

학적 추론 강조하심, 수와연산.도형 강조,

<과학>

경인교대 오필석교수님: 지구과학을 강조, 3,4학년 내용보다 5,6학년 내용을 강조, 오개념 중요히, 오개념과 STS 중요, 지구과학 전공이지만 물리와 화학도 강조, 짝센사람.

- 5,6 지도서 집필하셨습니다. 과학 모형(순환학습, STS 모형) 및 자유탐구 강조하셨습니다^^

춘천교대 강훈식교수님: 화학전공, POE 모형 매우 강조, 전압 -> 물탱크, 지층 -> 스티로폼 뭐 이런식으로 비유하는 것 강조, 영역별 골고루

<실과>

대구교대 정미경교수님: 진로교육쪽에 초등범위 해당하는거, 해설서의 네모 박스의 교수학습 방법쪽의 키워드 보라고 함, 전공은 의생활이시지만 각 과에서 하듯 과목별로 한번 훑어주셨음. 재봉틀, 십자수는 선택사항이라 세부적으로 내기 힘들기 때문에 수업방식으로 빌려오는 거 물을 수 있다고 하심. 바느질 하는 거 일단 기본개념이랑 지도방법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해설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외울건 외우라고 하심

서울교대 박혜란교수님: 실내원예 전공, 실과의 철학적이며 해석적인 문향을 현장성을 고려해 다양하게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짐(부분적으로 교과 내용을 접목하는 형식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음). 관엽식물 매니아, 수업 할 때 분갈이? 그런것도 직접 보여주심, 식물을 이용한 교실환경 꾸미기 강조

<체육>

부산교대 박종태교수님: 육상, 이해중심, 움직임모형, 실제학습시간, 이해중심모형/스포츠 모형 강조, 감상영역 외우라함, 구기영역 좋아함, 태권도 씨름은 내기 힘들지 않냐... 육상이 나오기 쉽지 않냐.. 수영은 나오기 힘들지 않냐... 하셨고, 숙제로 3~6학년 활동 모두 다 적어오기 시켰음.

공주교대 김명수교수님: 이어달리기 강조, 초등체육교육 전공, 헛소문일 가능성 큼.

<음악>

경인교대 김혜정교수님: 국악전공, 악기보단 민요부분, 음악을 왜 외워? 라고 하며 짜잘한 암기를 싫어하심. 짜잘한 암기가 아닌 각 민요의 특징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심. 국악계의 대부, 말불임새(말불임새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민요 하는 사람들이 말불임새 강조하는것을 अच्छ게 생각한다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음), 단소 강조, 기본적인거 위주로 먼저 보라고 하심!(어려운 개념보다), 장단 문제는 자진모리, 중중모리 다 박이 같아서 둘이 같이 내면 오류 소지있으니 세마치같이 확실한걸 내야한다고 하시고 서양 대 국악으로 나올것같다고 하셨습니다(9월에), 오류 없이 내는게 목표니 확실한것부터 공부하라 강조하심. 하지만 병이 있으셔서 쉬고 있을지도 모름. 잠자리 따라서 지으신분, 단소,장구 수업, 장구반주하면서 전래동요부르기, 단소 부르는 것은 1학년때는 아리랑, 3학년때는 세령산을 부름, 지역별 민요, 영남쪽 농악 전남쪽 농악(이걸 뭐라고 하더라...) 비교, 전공은 타악기(장구)

광주교대 김동현교수님: 국악, 단소, 장구

<미술>

경인교대 안금희교수님: 허위정보라는 소리 있음. 대지미술, 펠드만감상단계, 미적체험, 감상
강조, 미술 감상, 미술관

OO교대 이주연교수님: 조소 전공, 들어갔는지 확실하진 않음.
디자인

<영어>

대구교대 김영숙교수님: 작년 2차 출제, 올해 1차에서는 일견어휘 내심, 또 들어가셨다면..
영어 초토화 예상